

응답하라! 랜선 놀이 '공원'

토끼와 고양이가 좋아하는 '토끼풀'과 '괭이밥'

서울창포원
생태 5호

서울창포원에서 만난 '토끼풀'과 '괭이밥'
닮은 모습 때문에 쌍둥이인줄 알지만, 알고 보면 서로 달라요.
이번 기회에 우리 둘을 확실하게 알고 불러주세요~
'안녕~토끼풀' '안녕~괭이밥'

안녕~난 토끼풀이야!

토끼가 잘 먹는 풀이라서 '토끼풀'이라는 이름이 붙었다. '클로버'라는 이름으로도 불러~



앞 가장자리가 작은
툰니모양으로 되어있어



앞에 흰색 무늬가 나타나기도 해



흰색 꽃이 둥글게 모여서 피어나

안녕~난 괭이밥이야!

고양이가 잘 뜯어 먹는 풀이라서 고양이밥, '괭이밥'이라는 이름이 붙었다!



앞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매끈해



꽃잎이 5장인 노란색 꽃이 피어나



여기서 잠깐!!

괭이밥의 잎은 흐린 날이나 밤에는 가운데 선을 따라 반으로 접혀진답니다!

찾아라! 행운의 네잎클로버

비가 온 뒤 풀밭에서 만난 네잎클로버
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아보세요!!



만든이 :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정희
도움 : 공원여가과 김윤희